

심사일만 보던형제 문중발전 초석된다. \* 귀 종친의 밀린 회비는 만원입니다. 송금 무 제 국 011775-0046769-11 조덕선  
구과 국민은행 025-01-0315-161

## 淳昌趙氏문중과 700성상을 같이한 유서깊은 은행정마을 은행나무



忠淸北道 槐山郡 文光面 松坪里 179의 6 동리 한 가운데 한그루의 은행나무가 우뚝 솟아 있으니 이 은행나무로 인해 옛부터 마을 이름을 은행정이라 일컫곤 왔으며 또한 이 마을이 곧 순창조씨 문중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기도하다.

이 은행나무는 이 마을에서 탄생하여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원(元)나라 판과(判科)에 올라 고려 충목왕(忠穆王)때 예문관 대제학(藝文館 大提學)까지 지낸 순창조씨의 8세손 趙廉(시호는 文貞公 (1293-1346)께서 심은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그 후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오늘날까지 정성을 기우려 보살펴 왔다.

이 은행나무는 서기 1982년 11월 기준 수령 660년 높이가 12m 둘레 10.5m의 노 거수로서 충청북도 나무 고유번호 7-9로 지정되었으 며 그 수려하고 웅장함은 이고을 으뜸으로 오고 가는 길손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다. 또한 해마다 5월단오에는 가지마다 그네매고 다다루 하늘높이 나르고 한여름에는 그 그늘에 모여

더위를 피하며 밤을 지새워 오순도순 정담을 나누어 온 순창조씨 문중의 표상인 유서깊은 정자 나무이건만 오랜 풍상속에 늙고 병들어 근세에 와서는 한 아픔이 넘은 여러개의 가지와 하늘 높이 치솟은 줄기나무는 부러져나가고 나무둥치의 속은 모두 썩고 불타서 '옹자하고' 수려했던 옛모습을 잃고 고사직진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물결문명과 근대화의 물결속에 순창조씨의 세거지인 이고장도 예외없이 하나 둘 떠나버리고 700년을 고고하게 내려온 이소중한 문화유산마저 관심밖으로 밀려나 새마을 사업이란 미명아래 나무 뿌리는 잘라내고 그자리에 콘크리 배수로를 설치하는가하면 은행나무 바로옆에는 석축을 해서 농수로를 만들고 나무밑 넓은 마당은 주차장과 하차장이 되어 각종차량, 오물, 기름, 농약등이 난무하여 나무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본 26세손 행정과 趙德善(현 대중회장)은 서울농동에 있는 나무종합병원의 전문가를 찾아 자문과 치료를 호소하고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은행나무 살리기에 앞장섰으며 28세손 지곡과 趙敏植이 이에 힘을 보태어 1992년 2월 괴산군 주관하에 썩고 병든 부분은 도려내고 둥치의 빈 공간을 화학물질로 채워졌으며 가지와 가지사이 는 더 이상 벌어지지 못하도록 철봉으로 결속하는등 대대적인 외과수술을 단행하여 비로소 새순이 돋고 나무가 생기를 되찾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단 급한불은 꺾으나 이미 위에서 열거한 바있는 여러문제점은 해결을 못보고 상존해 있으니 안타까운일이다. 이소중한 문화유산 보호의 일차적 책임과 의무는 후손된자의 몫임을 인식하고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 참 고

일설에 의하면 이은행나무를 피세옹(1324-1402)께서 심었다고 전해오나 수령이 1982년 기준 660년임을 감안할 때 세옹의 선대이신 문정공(1293-1346)의 식수설이 유력함.

○진정서

尊敬하는 郭昭烈 郡守님

地域發展과 範圍近代化를 위하여 不懈夜 獻身努力하시는 郡守님께 깊은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직을 말씀은 다름아니라, 本人의 鄉里인 文光面 松坪里에는 約700餘年으로 推定되는 忠臣祠인 "은행나무"가 마을 中心層에 柱石을 이루고 예로부터 마을 이름도 "은행정"이라 일컬어 왔읍니다.

또한 이 은행나무는 高麗末 忠臣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한다와 落鄣하여 五馬山에 避世學을 세우고 그곳에서 終身복록 隱居하여 忠節을 지인 淳昌趙氏 門中の 七忠臣中 한분이신 忠臣 避世遊에서 樹植하였다고 傳해 내려오는 뜻깊은 遺蹟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은행나무는 數10年前까지만 해도 茂盛한 아름드리 가지가 巨樹를 감싸 그 秀麗한 景觀은 우리고상 으뜸을 자랑하여 왔으나 歲月를 단번에 잃어 수 없이 數 많은 被害를 입어 滿身傷이 되었으나 保護樹로 指定된 庇蔭을 保護 管理는 無難히하여 近年에 이르러 가지는 점차 부러져 나가 큰 줄기만 앙상하게 남고 큰 傷處는 더욱 벌어져서 治癒하기 어려운 狀態에 이르고 부러는 實數에서 이대로 放置하면 멀리 달아 枯死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를 인내롭게 생각한 나머지 多少의 經費를 스스로 負擔해서 專門家로 하여금 忠節을 手拂, 枯死간이라도 避免케 하고 싶은 心積에서 우리나라 唯一의 城東區 院洞에 있는 나무綜合病院을 찾아가서 協議한 바 個人으로서는 너무 많은 經費가 所要되어 어려울 뿐 아니라 保護樹 手術 事業은 各地方마다 文化遺蹟保護次元에서 該當部署主管下에 實施하고 있으며 關心이 있는 保護樹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다는 事實을 認識하고 이 은행나무도 오래 오래 保存 維持할 수 있는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 주신 것을 敬히 謝詞드리는 바입니다.

勿論 豫算上의 어려움이 있을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 "은행나무"는 비록 保護樹로 指定되었지만 天然紀念物에 附되지 않는 絕對的인 文化遺蹟이고 또한 이 事業은 失墜하면 鮮生시키거나 다시 만들 수 없는 일이며 傳統의 歷史의 證言이 되는 文化遺蹟을 保護育成하여 우리 後孫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比할 수 없는 大務이고 보람있는 일이라는 一念에서 이를 建議하오나 特別한 配慮도 全洞民과 淳昌趙氏門中の 오랜 宿願을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文化遺蹟의 保護育成이라는 願望에서 하부속히 이 事業이 成就되기를 懇切히 祈禱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事業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本人은 微力이나마 精誠껏 助力할 것을 約束드리며 郡守님의 健康과 幸福이 갖기 하기를 謹히 祈禱합니다.

1990. 6. 21.

서울特別市 銅雀區 馬石洞 388-14 趙 德 晉 拜上

○은행정마을 은행나무시(詩)

행정마을 趙茂柱지음

은행정마을 은행나무는

어느 봄 아지랭이 아른아른  
과꽃 봉우리 나비가 날고  
눈이 눈부서, 눈부시게 갓 쓴 선비  
쟁이 들어 은행나무 한그루 심으셨다네.

입열고 손벌려 빗물을 받아  
무리무럭 자라더니 은행정이란 이름 얻고  
병자호란 임진왜란 모진 풍상  
몸으로 이겨냈다네.

5월 단오면 댕기 처니  
외설 버선고 프른하늘 가히 차고  
뒤돌이 마을이 떠들썩 하도록  
충각의 마음을 설레이더니

정월 대보름 쥐불에  
행여 불길기 치솟을라 밤을 지새우는  
높고 곧은 절개

추석에는 풍성한 가을을 마을안으로  
거두어 거두어

7백년의 세월  
최찬한 몸을 이끌고  
모두 떠난 빈자리에서  
아직도 눈부시게 갓 쓴 선비는  
후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진정서에 대한 회신문

(회신3회중 마지막분)

귀 산 근

산림 27622 - 13/ 1992. 2. 19.  
수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성동 186-14번지 2덕신  
계목 보호수 희곡수술

귀하께서 요청하신 귀산근 환경면 송병면 은행나무 희곡수술 실시하게 되  
었습니다. 수술기간은 92. 2. 24 - 3. 14일 이므로 사업실행시 지도와 협조 또한 모든  
관계에 인연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귀 산 근



뿌리 및 종보 편찬원고 제출에 관한  
당부의 말씀

종보(宗報)에도 게재하고 "순창조씨의 뿌리" 편  
찬에도 포함시키고자 하오니 각과문중 또는 가문  
에서 간직하고 있거나 관리해온 유적, 유물, 기념  
물 위선사업, 전설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본, 사  
진등을 첨부해서 빠짐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효자비, 열녀비, 공덕비등의 비문과 사진,  
정려(정문)의 내력과 현판문및 사진 집담관리하  
는 사당의 건립경위및 현황실태, 건물사진, 집  
촌(集姓村) 또는 세거지의 내력과 현재의 상  
배출인물, 미풍양속, 전해내려오는 유적 유물등  
문중의 역사적 자료가 될만한 일체의 자료를 각  
과대표대의원 책임아래 사진을 첨부해서 빠른 시  
일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 백팩포로 올라가는 길가 노천 온천수에 손을 담그고 강백팩포(일명비동폭포)에서 천지로부터 흐르는 물을 떠마시고 강백은천에서 피곤한 몸을 풀다음 백두산 호텔(白山大酒店)로 하산해서 하루밤 쉬는 것으로 대방의 백두산 등정을 마무리 하였다.

**다** 음달 독립운동의 발상지이며 선구자의 고장인 용정(龍井)에 들었다.尹東柱(1917~1945) 시비가 서있고 일제강점기 이국땅에서 많은 인재를 양성 배출한 대성중학(大成中學 : 현재는 龍井中學) 전신실을 살펴본뒤 연변(延邊) 지방에서 북한으로 통하는 길목이며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다리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척에 북한의 남양(南陽)과 마주보고 있는 국경도시인 도문(圖們), 으로서 노래로만 듣고 부르던 그리운 두만강(豆滿江)을 찾았으나 기대와는 달리 두만강 푸른 물은 옛 말이 되고 지금은 북한의 공장폐수로 먹물같은 오수만 흘러 감히 손조차 담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또한 철교는 있으나 지나 다니는 기차는 하나 없고 다리는 있으나 승용차 한대와 오고가는

사람 세명이 내가본 전부이다. 우리의 땅에 한발이라도 더 가까이 가 보려는 의도에서 강둑을 너머서 북한과 가장 근접한 두만강 강변으로 다가가서 보았으나 건너편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이 정적만 흐르고 잠시 강바닥에라도 앉아 아쉬움을 달래려 해도 먹물을 뒤집어 씹은것 같은 자갈밭이 이것마저 거절하여 할일없이 진잠대에 올라 이 북한천만 하염없이 바라보다 되 돌아 서야 했다.

**백** 두산을 거쳐 북경(北京) 계림(桂林) 상해(上海) 등을 7박 8일간 여행하는 동안 어느곳을 가도 우리나라 사람이 넘치고 우리돈의 위력이 크며 우리나라가 중국의 개방과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실감할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높아 진 위상과 현실에 현혹 고무되고 도취되어 지나친 자만으로 상대방을 경시하고 분수없이 흥청망청하면서 평범한 예절이나 도덕조차 지키지 못하는 행위는 없었는지? 노파심에서 몇번이고 되새기게 된다  
(조덕선 대총회장)

## 淳昌趙氏의 뿌리

### ⑤ 행적이 전해내려 오지 않는 주요인물

- ♪ 19세 趙一范 (1611~1695) : 參奉 (평택파의 직조)
- ④2 19세 趙錫孚 (1634~1712) : 參奉, 主簿, 壽職 僉知 中樞府事 (해미, 양지파의 직조)
- ④3 19세 趙重泰 (1611~1649) : 迪順副尉 (청주파의 직조)
- ④4 19세 趙重震 (1614~1682) : 武科급제 (1676), 迪順副尉, 宣略司果 (청주파의 직조)
- ④5 19세 趙 汴 (1620~1668) : 閔慶縣監 (여주파의 직조)
- ④6 19세 趙 湑 (1612~1712) : 乘節校尉, 副司果 壽資 通政, 中樞府使 증직 資憲大夫 同知, 義禁府事 五衛都總府副總管 겸 春秋館事 (안촌파의 직조)
- ④7 19세 趙 濯 (1648~1712) : 副司果 (지곡파의 직조)
- ④8 19세 趙 澹 僉知 中樞府事 (기성파의 직조)
- ④9 19세 趙元甲 : 武科급제, 乘節校尉 (이곡파(무후))
- ⑤0 19세 趙 瀆 (1665~1732) : 증직 嘉善大夫 工曹參判겸 同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 副總管 (원충파의 직조)

- ⑤1 20세 趙有穉 (1638~1683) : 증직 大司憲 (평택파의 직조)
- ⑤2 20세 趙有穉 (1644~1712) : 進士(평택파의 직조)
- ⑤3 20세 趙有穉 (1647~1704) : 武科급제 (1676) 興陽縣監 僉知中樞府事 五衛將 (평택파의 직조)
- ⑤4 20세 趙有季 (1664년생) : 武科급제(1676) 效力副尉 (평택파의직조)
- ⑤5 20세 趙彝重 (1660~1727) : 參奉, 察訪 (해미파의 직조)
- ⑤6 20세 趙彝和 (1669~1729) : 同導寺主簿, 禮賓寺別提, 內資主簿 (양지파의 직조)
- ⑤7 20세 趙擊維 : 증직 漢城左尹 (청주파의 직조)
- ⑤8 20세 趙宇鳴 (1648~1718) : 四山監役 (여주파의 직조)
- ⑤9 20세 趙宇衡 (1653생) : 龜山縣令 (여주파, 무후)
- ⑥0 20세 趙明尹 (1640~1722) : 武科급제(1676) 宣傳訓練主簿, 判官 都總府都事, 訓練判事, 司供內丞, 嘉善大夫 義禁府事, 五衛都總府副總管겸 忠壯將 (안촌파의 직조)
- ⑥1 20세 趙東井 (1674~1752) : 嘉善大夫 龍讓衛副護軍 (지곡파의 직조)
- ⑥2 20세 趙東尹 (1701~1780) : 嘉善大夫 同知 中樞府事 (원충파의직조)

- ㉔ 20세 趙東燦 (1698생) : 증직 通政大夫 秘書丞 (소암파의 직조)
- ㉕ 21세 趙蕃 (1663~1748) : 嘉善大夫 同知 中樞府事 (평택파의 직조)
- ㉖ 21세 趙 昉 (1676~1734) : 武科급제 (1710) 宣傳官 訓練判事, 廣侯軍威縣監, 碧嶺郡守, 雲峯營將, 肅川府使, 廣興府使 (평택파의 직조)
- ㉗ 21세 趙 田井 (1699생) : 武科급제, 嘉善大夫 (평택파, (무후))
- ㉘ 21세 趙昌世 (1684~1756) : 都事 壽職, 僉知 中樞府事 (해미파의직조)
- ㉙ 21세 趙廷麟 : 同知 中樞府事 (청주파의 직조)
- ㉚ 21세 趙爾明 : 通政大夫 僉知 中樞府事 (청주파의 직조)
- ㉛ 21세 趙廷茂 (1659~1721) : 正郎 (안촌파의 직조)
- ㉜ 21세 趙以晟 (1730~1792) : 증직 通訓大夫 掌樂院正 (팔송파의 직조)
- ㉝ 21세 趙以得 (1730생) : 증직 通政大夫 秘書丞 (소암파의 직조)
- ㉞ 21세 趙文彬 : 증직 通訓大夫 軍資監正 (행정파의 직조)
- ㉟ 22세 趙錫重 (1686~1752) : 進士 (평택파의 직조)
- ㊱ 22세 趙錫堉 (1702~1743) : 武科급제(1730) 司果 (평택파의 직조)
- ㊲ 22세 趙錫一 (1694생) : 武科급제(1730) 司果 (평택파의 직조)
- ㊳ 22세 趙錫五 (1700생) : 武科급제 主簿 (평택 (무후))
- ㊴ 22세 趙彥淳 (1713~1766) : 通訓大夫 司僕寺正 (양지파의 직조)
- ㊵ 22세 趙時謙 (1721~1783) : 文科 장원급제 (1750) 掌樂院正 (여주(무후))
- ㊶ 22세 趙尚周 (1690~1733) : 乘節校尉 副司果 (안촌파의 직조)
- ㊷ 22세 趙重鎰 (1755~1837) : 증직 通政大夫 戶曹 參議 (팔송파의 직조)

주소변경시에는 자진 연락바랍니다.

※주소변경으로 종보 제9호가 반송된 종친명단 (1411통 발송중 30통 반송)

- |                                 |            |
|---------------------------------|------------|
| 평택파 炳洙, 苗圭                      | 삼고파 榮柱, 貞混 |
| 양지파 章燮                          | 인안파 麟柱     |
| 여주파 丙春                          | 문음파 珪混     |
| 단양파 星熙, 衡珠                      | 원종파 勝混, 泰奎 |
| 청주파 相鶴                          | 품곡파 衡植     |
| 진천파 允混                          | 갑산파 度植     |
| 성종파 吉善, 周植                      |            |
| 팔송파 容混, 炳旭, 華柱, 英混, 確柱          |            |
| 明龍 學柱,                          |            |
| 탐동파 範混, 錦混, 學柱, 昌柱, 東柱 (이상 30명) |            |

宗親소식

- 모임 행정과 종친회 (95. 8. 13)
- 결혼 서산파 세기 장녀 진아 (95. 7. 2)  
여주파 공상 따님 병연 (95. 8. 24)
- 고회 예천파, 대규, 세규, 한규, 준, 의 모친 (95. 7. 9)

나, 현시랄 밀린회비 종친모임 주를주고  
심시일만 보태회비 종친간에 웃음신다.

※회비를 보내주시는 종친명단

(95. 6. 1~95. 8. 30)

- 평택파(3) 병희, 한기 각 40,000 병우 20,000
- 여주파(2) 준상(목동) 진상 각 40,000
- 지평파(9) 철상 40,000 영락, 병택, 병기, 병국  
병욱, 병남, 병세, 병호 각 20,000
- 행정파(4) 태실 50,000 태관, 태규 각 40,000 영주 20,000
- 탐동파(2) 윤식, 태웅 각 20,000 지곡파(1) 경식 20,000
- 갑산파(1) 봉주 20,000 기성파(1) 인선 40,000
- 진천파(1) 차선 20,000 단양파(1) 병식 20,000
- 마전파(1) 한식 40,000 삼고파(1) 락선 30,000
- 송현파(1) 익선 20,000 예천파(1) 문용 20,000
- 문경파(2) 영범, 영희 각 40,000 팔송파(2) 효식, 익주 각 40,000

※파를 명시하지 않은분(7)  
(파를 알려주어야 장부정리가 됩니다)

1. 국민은행 : (현금) 50,000 (6. 21) 영식 20,000 (6. 23)  
이화 풍우 ← (월기) 40,000 (7. 15) 연심 20,000 (8. 8)
  2. 우체국 : (미사) 20,000 (6. 12 추주) 팔송파 30,000 (7. 3 추주)  
인규 40,000 (8. 2 추주)
- 18명 송송  
이상 40명 출계금액 1,180,000

팔송파의 위유는 우체국(8.31)까지만